

금호그룹, 구조조정 자금마련 박차

9월 준공한 베트남 플라자 지분 매각 ... 대우건설·금호렌터카도 팔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베트남 Ho Chi Minh의 금호아시아나플라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 Chi Minh 중심지에 들어선 금호아시아나플라자는 5성급 호텔 객실 305개, 아파트 260가구, 오피스, 상가 등 3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로 9월 말 준공했다.

대지면적 1만3600㎡에 지하 3층, 지상 32층(연면적 15만㎡)으로 총 2억6000만달러를 투입했으며, 현재 금호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금호아시아나플라자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최대 49%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의 호텔 관련기업과 매각액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액은 150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분을 매각하면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생명의 지분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강남고속터미널은 10월 초 본계약을 체결했다. 또 대우건설과 금호렌터카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8>